



임실군이 고품질과 고소득의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

조사료 경영체 · 사료자가 배합기 · 폭염대비 사육환경 개선 등 7개

임실군이 고품질과 고소득의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축산농가의 노동부담을 덜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엔 실시하는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으로 사육시설과 환경개선 등을 위한 장비를 지원한다.

축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료자가 배합기 △폭염대비 사육환경 개선 △차량차

동소득설비 지원사업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환풍기 및 사료이송시설 등 양돈지원 △급수대 등 가금지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4억9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6200만원 증액돼 사육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특히 폭염대비 사육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자가발전기와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 등 사육환경을 크게 개선함에 따라 노동력 절감은 물론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또한 축산농가의 원활한 지원

과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품질높은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고령화와 어려운 사육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작년보다 올해 더 지원예산을 늘렸다"며 "이 사업을 통해 한우와 양돈, 양계농가 등 가축 사육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임실이 부족한 축산농가에 희망을 주고, 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읍·면·동 찾아 올 한해 시정 방향 설명·의견 청취

이환주 남원시장이 연초부터 진행한 시장설명회가 시민과 행정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9일 주생면을 시작으로 7일 운봉읍까지 23개 읍·면·동을 찾아 올 한해 시장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래로 도약하는 새 희망 남원, 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는 주제로 진행된 시장설명회는 기관단체장의 소개를 삭제하고 이 시장과 시민들의 대화시간을 대폭 늘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읍·면·동 회의실에서 열린 시장설명회

에는 매회 100~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6일 열린 덕과면 시장설명회에는 전체 주민의 10분의 1에 이르는 100여명이 넘는 주민이 참석했다. 주민들의 집중력도 돋보였다. 시장설명회 내내 자리를 떠나는 주민들을 찾기 힘들었다.

건의사항도 모두 97여건에 이르렀다. 교량보수나 도로위험구간 개선 등 일부 건의사항은 시장설명회 후 실과 소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확인하여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하였다.

덕과면에서는 교통량을 조사하여 시내버스가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고, 주천면에서는 구룡

폭포구간에 대한 국립공원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등 건설적인 제안도 쏟아졌다. 시장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실과소 담당자들이 직접 당사자에게 처리방향과 시기를 일러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시장설명회에서는 또, 뜻하지 않은 이벤트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농사정보를 제공하는 농업상담소장과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지소장을 시장설명회 중에 즉석에서 소개시켜 주민들과 친밀감을 높였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해 남원시가 추진했던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올 한해 동안 계획하고 있는 역점사업을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영양교육 등

순창군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올 한해 2억7,000여만원을 투자해 보건·보육·복지가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올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건강검진, 아동 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필수서비스 15개 프로그램과 언어치료, 가족캠프, 로봇과학교실 등 27개 사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해 총 130가구 250여명이다.

군이 제공하는 필수서비스 프로그램은 주로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함양과 신체적 발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건강검진, 영양교육, 소방안전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문화, 특기적성 등의 요구를 지원하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이다. 안경지원 등 보다 세부적 신체건강서비스는 물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족캠프, 영화 및 스



포츠관람 서비스, 옹기체럼 등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돕기 위한 서비스 등이다.

이외에도 군은 기초화력검사, 찾아가는 언어치료 등 기초화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해 취약계층 아이들이 학교생활 적응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기가정 구성원들이 전문심리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이들의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통합놀이 치료프로그램도 운영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군은 3월 초부터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도탈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관광안내소 정비·정보안내시스템 구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생활권보 전지역과 명실상부한 세계유산도시로 사계절 즐거운 관광이 가득한 관광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이 도내 전역을 보다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한 '도탈관광'을 실현하면서 찾아와 머무르는 고창군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고 7일 전했다.

'도탈관광'은 송하진 도지사가 '삼라농경', '탄소산업'과 함께 추진 중인 민선 6기 전북도정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전라북도내 '한 곳 더, 하루 더,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도탈관광'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전북투어패스'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광안내소 정비와 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어패스 정착을 위한 자유이용시설과 판매소 설치, 특별할인가맹점을 모집했다.

또한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탈관광 브랜드를 활용한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등 8개소를 정비하고 브랜드 LED 채널간판, 투어패스 알림표 등 제작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 전북투어패스라인 자유이용 시설은 고창읍성, 관소리 박물관, 고인돌박물관, 동리시네마 등 4개소이며 투어패스 판매소는 고창읍성 관광안내소, 고인돌박물관, 관매포, 선운산 관광안내소 등 3개소다.

여기에 특별할인가맹점 모집을 통하여 맛집, 숙박, 제과점, 카페, 체험시설 등을 33개소로 모집하여 전라북도 목표 30개소를 최초 달성했다.

도탈관광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군은 관광안내소 정비, 안내원 교육과 판매소 설치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이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고창·정읍·부안 서남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해 서남권 시티투어, 스마트 홍보단 위촉(20명), 동행 해설사 위촉(4명)과 각 읍면에 현수막과 게시대를 활용해 투어패스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마다 투어패스 이용 협조공문 발송과 판매소 종사자들의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다중집합 행사(군민과의 대화, 이장단 회의)에서도 전북투어패스 운영을 설명하면서 패스 카드 한 장으로 전북관광을 모두 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 소식통



전북소방본부장, 순창시장 방문 지도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은 지난 6일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현장행정을 위하여 순창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설 연휴가 끝나고 화재 등 재난에 대한 경계가 늦춰진 시점에서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재강조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는 불법 주차 및 노점 단속 등을 통한 소방통로 확보와 가연물 방치 행위 금지, 영업하지 않는 점포 출입제한 및 야간 경비인력 확보, 비상구 관리 철저 등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전달과 소방관련 불편사항 등의 애로사항 청취도 이루어졌다.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은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등 화재 없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소방서에서는 2월 말까지 관내 전통시장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특별조사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불시출동훈련 △화재안전시설 보장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저소득층 가스 개선 사업

남원시가 올해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총 7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 보일러,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500세대의 낮은 일반조명을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바꿔 전기요금을 절감하기로 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시설 교체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5억2,200만원이 투입된다.

LPG 가스를 사용하는 1,030세대에는 2억4,500만원을 들여 기존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바꾼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300세대에는 1,500만원을 들여 가스 타이머를 보급해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보일러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원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펼친다. 2,255세대에 2억8,300만원을 들여 난방유와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펼쳐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8억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297세대에 에너지 복지사업을 실시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명품 고추 생산 현장지도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노지고추 파종 및 육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점 지도기간을 설정하고 현장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추는 '모 농사가 반 농사'라고 할 정도로 모종 소질이 매우 중요하며 우량 고추모 생산을 위해 2월 상순에서 중순까지 파종을 끝마쳐야 한다.

원활한 모종 생산을 위해 짝을 띄워 파종을 실시하고 고추종자를 30°C의 물에 5~10시간 담근 후 찬에 싸서 28~30°C에서 약 1~2일간 싹을 틔워야 한다.

싹이 튼 종자는 가급적 오전에 파종하고 온도는 25~30°C로 관리하며 싹이 자리 잡은 후에는 낮 온도를 27~28°C, 밤 온도를 22~23°C로 유지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전국제일 귀농·귀촌 최적지 조성 '올인'

순창군이 주거·교육·영농실습 3박자를 갖춘 귀농정책을 추진해 전국제일 귀농·귀촌 최적지로 떠올랐다.

군은 작년 한해 618세대 1,010명이 순창으로 귀농 귀촌했다고 밝혔다. 올해 귀촌·귀촌인 유치 목표는 1,500명으로 높였다.

순창군의 귀농귀촌 인기 비결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정착에 가장 힘들어 하는 주거 문제부터 영농실습까지 원스톱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우선 도시권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환경 지원 사업을 펼친다.

순창읍 남계리 일원 귀농인 마을에는 귀농·귀촌인이 1~2년 동안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스태하우스 4동, 2~3일 동안 머물며 순창을 알아보는 게스트 하우스 1동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구림면 월정리에는 10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인공했고, 귀농인의 집 14동, 셰어하우스 4동도 운영되고 있다. 금년에는

귀농인의 집 8동 조성을 위해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귀농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도 순창 귀농·귀촌 비결의 하나다. 군은 예비 귀농인을 위해 귀농 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23회 420여명에게 단기 및 장기교육을 추진해 예비 귀농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다.

특히 6주 이상 장기교육은 선배 귀농·귀촌인들과 만남, 현지 농민들의 생생한 농촌 현장을 볼 수 있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영농실습을 위해서는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을 연계하는 현장실습 교육과 체재형 농장을 통한 영농체험 사업을 펼쳐 생생한 영농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군은 3박자 귀농정책이 전국제일의 귀농일번지는 물론 사람 찾는 농촌 삼락농정 일번지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시설물 안전 점검·사고 예방 활동 강화

3월 31일까지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추진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일구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명품고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이달 수 부근수를 단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전문가들과 함께 지

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군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노후교량, 저수지 등 재난취약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에게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변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재난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